

GILLETTE & L'ORÉAL, WOMEN USA VOL. VI

South Dakota • Tennessee • Texas • Utah • Vermont
Virginia • Washington • West Virginia
Wisconsin • Wyoming



FERDINANDO FREGA

GILLETTE & L'ORÉAL, WOMEN USA — VOL. VI

L'ORÉAL THROUGH GILLETTE · 20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미국 횡단의 마지막 구간, 그리고 시리즈를 닫는 노트.

제0장 — 공통의 서장

이 첫 장은 미국의 여성들 시리즈 여섯 권 모두에 공통으로 실린 장이다. 여기에 전문을 신뢰, 시리즈를 반복 없이 차례로 읽을 수 있도록 접어 두었다.

제0장

이곳에서 세상은 영토가 아니다: 한계다. 북극은 반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며, 실수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하양은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한다, 말없이, 기억도 없이. 기온은 기상 정보가 아니다: 포식자다. 밤은 몇 달 동안 이어지며 생각을 짓누르고, 사람들의 윤곽을 일그러뜨리고, 그들의 의지를 삼킨다.

공동체는 몇 되지 않고, 작고, 닫혀 있다. 이누이트, 유픽, 북극의 민족들은 아무도 머물기를 택하지 않을 곳에서 산다. 이곳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집단의 생존에 꼭 필요하다. 쓸모가 없으면 짐이 된다. 그리고 짐이 된 사람들은 침묵 속으로, 눈 속으로,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는 환경의 논리 속으로 사라진다.

과학 기지는 또 다른 종류의 냉기를 더한다: 위계의 냉기다. 이곳에서 여자는 드문 존재, 적응하거나 무너져야 하는 변칙이다.

이곳에는 '실종'이라는 개념이 없다. 모든 것을 지우는 하양만 있을 뿐이다.

이누이트와 유픽의 여자들

북극의 소녀는 귀하게 자라지 않는다: 준비된다. 일찍부터 추위와 어둠과 굶주림을 견디는 법을 배운다. 씨족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곳에서 정체성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능적인 것이다. 여자는 가족과 공동체의 짐을 진다: 음식, 불, 아이들, 가족, 돌봄. 아무도 권리를 말하지 않는다. 아무도 연약함을 말하지 않는다. 우울은 존재하지만 이름이 없다. 폭력은 존재하지만 증인이 없다.

과학 기지의 여자

교육받았고, 유능하고, 규율에 익숙하다. 그녀는 연구원으로, 기술자로, 의사로 도착한다. 그리고 곧 북극이 자격증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곳에서는 정신의 강인함만이 중요하다. 남자들의 위계가 그녀를 지배하고, 약해 보이는 어떤 기색도 나약함으로 해석된다.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환경이다: 극도의 자제력이 요구된다.

서구에서 온 '바깥'의 여자

자유 속에서 자란 그녀는 추위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도착한다. 그러나 이곳은 그녀를 부순다: 고독, 비좁은 공간, 끝없는 침묵. 기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계 장치다. 그리고 남자들이 설계한 기계 장치 안에서 여자는 사라지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한다.

세상 끝으로 가는 여행

이웃인 Antonio, 다들 Nino라고 부르는 그는 몇 년째 노르카프와 백야, 어둠이 없는 몇 달 이야기를 했다. 주머니 속에 넣어 둔 꿈, 불가능한 무언가 같은 것이었다. 5월의 어느 아침, 나는 그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이 말만 했다. "여행 가방 싸요. 한 시간 뒤에 다시

올게요. 30일 뒤에 돌아올 거예요.” 그는 놀라서, 기뻐서 나를 바라 보았다. 걱정이 된 그의 아내가 우리 계획이 뭐냐고 물었다. “꿈을 쫓는 거죠.”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차에 올랐다. 아내들은 미친 사람 보듯 우리를 보았다. 하지만 이 여행은 진짜였다. Nino는 벌써 질문투성이였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돈은 얼마나 가져가야 해요?” “진정해요.” 내가 말했다. “54시간이면 도착해요. 고작 5,000km예요. 새 Range Rover를 타고 가잖아요. 드라이브를 즐겨요.”

300km마다 멈춰야 했다: 나보다 열두 살 많은 그에게는 그만의 리듬이 있었다. 나는 물과 마실 것을 챙겼고, 그는 커피와 생리적인 불일을 챙겼다. 그리고 멀리 갈수록 그는 자기 인생 이야기를 더 많이 했다. 그 끝없는 길이 아니었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것들이었다.

차 안에 단둘인 남자 두 명은 언제나 여자 이야기를 한다. 그는 평생 아내 한 사람밖에 몰랐다. 나는 웃었다. 그를 안심시켰다. “우리도 다 그래요.”

그는 60시간을 운전하면서 어떻게 제정신을 유지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러시아 이야기를 했다, 스물두 살 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여자를 만나러 51시간을 운전했던 일을. “거리는 한계가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핑계일 뿐이죠. 나는 핑계를 가져 본 적이 없어요.”

하얀 세계에 도착하다

우리는 노르웨이에 들어섰다. 길가의 숙소 하나. 차는 거기 두고 썰매로 계속 갈 참이었다.

가이드는 온몸을 감싸고 있어 속을 알 수 없었다. 그녀가 고글을 벗었을 때에야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 노르웨이 여자, 말이 없고, 단도직입적이고, 얼음 같았다. Nino는 썰매 가운데, 그녀는 앞, 190cm의 나는 뒤에서 맨 끝을 맡았다.

아직 낮이었다. 시계는 시각을 알려 주었지만, 밤인지 아침인지는 알려 주지 않았다. 백야였다. 우리는 노르카프에 도착해 있었다.

Nino는 울었다. 나를 끌어안았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조심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게이로 알겠어요.” 우리는 웃었지만, 우리는 세상의 끝에 있었다.

그리고 혹한이 찾아왔다: 영하 52도.

진짜 북극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옷을 갈아입으라고 우리를 금속 컨테이너로 데려갔다. 지독하게 무겁고 숨을 두른 방한복, 복잡한 지퍼로 여미는 옷이었다.

나는 가이드 비용을 냈다. Nino는 남자 몇 명과 함께 이글루 하나에 남겨졌고, 나는 다른 이글루에 한 가족과 함께 남겨졌다: 일흔에서 여든 사이의 노인 한 명과 서른에서 쉰 사이의 여자 세 명.

단한 세계였다. 단순했다. 잔혹했다.

남자는 한쪽에 물러나 있었다. 여자들이 일의 박자를 이끌었다. 그리고 화장실은 이글루에서 5미터 떨어진 언덕이었다: 똥은 땅에 닿기 전에 얼어 버렸다. 나의 첫 오줌은 노란 북극의 별이 되었다. 북극이 내게 건넨 인사였다.

중년의 여자 Magi는 영어를 조금 했다. 나머지는 몸짓, 눈빛, 손이었다. 추위의 언어.

방한복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자,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사타구니를 만져 숨은 지퍼를 보여 주었다. 악의도, 부끄러움도 없었다: 기능일 뿐이었다. 생존.

이글루에서의 사흘

그들은 음식을 가져왔다. 훈제 생선, 날생선, 대구 간, 고래 뱃살. 그리고 상어 완자. 선택은 없었다. 대안도 없었다. 자연이 내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다음 나는 마셨다: 붉은 액체를. 와인인 줄 알았다. 거르고, 끓이고, 달게 만든 고래 피였다. 나는 그것을 마셨다. 그것은 한 번도 느껴 본 적 없는 힘을 주었다. 원초적인 에너지. 코카인인 줄 알았다. 아니었다. 몸속으로 들어오는 북극이었다.

여자들은 나를 지켜보았다. 노인은 사냥하러 나갔다. 나는 쉬면서 피를 마셨다. 전화도, 인터넷도, 컴퓨터도, Nino도 없는 사흘. 나와 그들뿐이었다.

밤은 없었다. 빛과 불과 얼음과 숨결만 있었다.

세 여자가 잠자리에 누웠다. 나는 자리를 찾았다. 가장 젊은 여자가 팔을 들어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영문을 몰랐다.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크리스마스'라고 했다.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뜻이었다.

고맙다는 뜻으로 돈을 좀 건네려 했다. 그들은 거절했다. 그저 포옹을 원했다. 그리고 더 가깝게 느끼도록 칼라브리아 말 몇 마디를.

거기서 나는 진짜 선물의 가치를 깨달았다: 사고팔 수 없는 선물.

가이드의 작별

사흘 뒤 가이드가 왔다. 그녀는 세 여자와 한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나는 밖에 있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언어, 그들의 세계, 그들의 법이었다.

컨테이너에서 내가 옷을 벗고 있는데 가이드가 들어왔다. 호기심 어린 채. 단도직입적으로. 북유럽 사람답게. 그녀는 나를 꼭 끌어안았다. 내게 입을 맞추었다. 그녀의 피부는 우유처럼 하얗다. 그녀의 눈은 8월의 하늘처럼 파랬다.

그녀는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했다. 그 세계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했을 것이다.

나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안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약속 하나만 남겼다. "필요한 게 있으면 편지를 써요. 도와줄게요." 그녀는 돈마저 거절했다. 아름다운 여자였지만, 외로웠다. 멀리서는 보이지 않는 외로움. 추위가 용서하지 않는 외로움.

집으로 돌아오다

우리는 Nino를 데리러 갔다. 그는 신이 나 있었다.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아내와 약속이 있었다.

그는 모두에게 자기의 사할 이야기를 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 남자와 아무것도 나누지 않았다. 오직 종이와만 나누었다.

그렇게 Nino가 자기 세계로 돌아가는 동안, 나는 이미 다른 세계로 가는 길 위에 있었다. 또 다른 목적지. 또 다른 만남.

환영한다.

에필로그

북극은 당신을 데려가지 않는다: 당신을 바꾼다. 그리고 결코

당신을 온전히 돌려주지 않는다. 남자들은 빛과 침묵과 사진과 꿈을 찾아 북극에 온다. 여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머문다.

남자들은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한다. 여자들은 자기가 겪은 것에 대해 침묵한다.

남자들은 돌아간다. 여자들은 남는다. 추위 속에, 눈으로 지은 집 속에, 아무도 듣지 않는 침묵 속에 남는다. 자신들을 기리지 않는 공동체를 떠받치기 위해 남는다. 아이들과 노인들과 낯선 이들을 지키기 위해 남는다. 보이지 않는 채로 남는다.

나는 그곳에서 단 하나의 기억만 가지고 왔다: 아름다운,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러나 혼자인 여자. 낭만적인 의미가 아니다.

인간적인 의미에서. 비극적인 의미에서.

성찰

북극은 몸을 죽이지 않는다. 존재를 죽인다. 그리고 남는 것은 하양이다: 여자들이 살아가는 동시에 사라지는 곳.

그래서 나는 쓴다. 극한의 장소들은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침묵하는 사치를 누릴 수 없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의 땅이 나를 낳았고, 나머지 세상은 나를 손님이 아니라 가족의 한 사람으로 맞아 준다.

북극의 절대적인 하양에서, 나는 미국의 절대적인 혼란 속으로 내려갔다.

미국

불가능한 임무

미국 회사에서 18년을 일하면 세상 어떤 회사도 줄 수 없는 것을 얻는다: 일의 문화, 절차, 분명한 사명, 그리고 이론이 아닌 가치 체계—그것은 매일의 실천이다. 그들은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 당신 안에 지어 준다. 그리고 당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

뉴욕 사무소에 있을 때,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을 제안받았다. 승진이 아니었다. 전근도 아니었다. 실험이었다.

미국 안에서 인간관계의 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만든 비밀 프로그램. 그들은 매니저도, 심리학자도, 트레이너도 고르지 않았다. 현실 세계에서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골랐다. 그리고 내 이름이 나왔다—영업에서 18년을 보낸 나였는데도. 그들은 직책을 보지 않았다: 머리를 보고 있었다.

시험은 설명하기는 간단했고 해내기는 극도로 어려웠다:

1년 동안 미국의 50개 주를 방문할 것, 도시는 직접 고르고 각 도시에 적어도 일주일의 머물 것.

마지막 2주는 강제 휴가였다. 모든 비용은 그들이 낼 것이었다. 나는 그저 살고, 관찰하고, 이해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었다. 인간적이고, 건조하고, 정확한 기록을.

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집에 알렸다. 집에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매달 오는 생필품이 도착했는지만 알고 싶어 했다. 나는 미국에서의 1년을 맞으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처럼, 다음 달을 맞으려 하고 있었다.

만일을 위해 내 급여는 이탈리아의 내 은행 계좌로 곧장 입금되었다. 그것은 내게 이렇게 말하는 정중한 방식이었다.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가진 것으로 살아라. 네가 정말 누구인지 보자.”

15년이 지나서야 나는 나의 원래 보고서들과 분석들, 그들이 나에게 대해 모아 둔 자료를 볼 수 있었다. 이 책은 거기서 태어났다. 나는 이 책을 출간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단 하나의 조건으로: 이 일을 의뢰한 회사의 이름을 절대 밝히지 말 것.

상관없다. 이 이야기는 로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직접 겪어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에 있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다.

가장 먼 곳에서 시작할까?

논리적인 선택은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유는 간단히 두 가지였다:

1. 나는 실험을 막 시작한 참이었다: 정신은 맑고, 주의력은 최대였다.
2. 극단에서 시작하면 진로를 바로잡으며 여행을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다.

보스턴이나 시카고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었다. 국경에서 시작해야 했다. 서류상으로만 미국인 곳에서.

나는 알래스카의 주도 주노를 골랐다. 고립된 곳. 배나 비행기로만 닿을 수 있는 곳. 누구의 것도 아닌 도시. 출발하기에 완벽한 곳.

자원을 최적화하라

떠나기 전, 나는 미국인이 무엇보다 존중하는 일을 했다: 관광객이 아니라 프로처럼 준비를 갖춘 것이다.

국내 노선망이 가장 넓은, 가장 인기 있는 항공사 세 곳에 전화했다. 한 시간도 안 되어 60% 할인된 국내선 항공권 50장 묶음을 샀다.

기간 제한 없음. 날짜 제한 없음. 제약 없음. 조건은 단 하나: 1년 안에 쓸 것.

호텔 체인, Uber 택시, 렌터카 회사와도 똑같이 했고, 그런 다음 일정표를 제대로 짰다, 구간과 방식은 정하되 시간은 정하지 않은 일정표를.

나는 준비가 되었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진짜 성공이었다. 내가 움직일 줄 안다는 첫 번째 증거였다. 미국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에게 보상한다.

회사가 그 거래를 보았을 때, 그들은 미국 문화가 언제나 하는 일을 했다: 신뢰도를 확인한 것이다.

나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1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예상치 못한 일, 거리, 비상사태를 처리할 수 있는가? 나는 독립적인가?

그래서 떠나기 전, 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세부 사항을 정리해 두었다:

신용카드의 월 한도를 최소 10만 달러로 확보해 둔 것이다.

쓰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인은 이렇게 생각한다: 자율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 그리고 자유가 없으면 평가받을 수 없다.

그 순간부터 프로그램은 더 이상 과제가 아니었다. 사명이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여행한다

알래스카는 지리상으로만 미국의 일부다. 그곳은 또 다른 세계다.

여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곳이다. 신고가 결코 목적지에 닿지 않는 곳. 도시들이 야생의 대륙 한가운데 떠 있는 문명의 섬에 불과한 곳.

주노는 나의 첫 시험이었다: 나라의 다른 곳과 이어지는 도로가 하나도 없는 주도. 미국처럼 느껴지지 않는 미국의 한 조각.

여기서 나는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여행은 지리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인간적인 것일 것이다.

블록 1 (제1권)

앨라배마 – 알래스카 – 애리조나 – 아칸소 – 캘리포니아 – 콜로라도 – 코네티컷 – 델라웨어 – 플로리다 – 조지아

블록 2 (제2권)

하와이 – 아이다호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아이오와 – 캔자스 – 켄터키 – 루이지애나 – 메인 – 메릴랜드

블록 3 (제3권)

매사추세츠 – 미시간 – 미네소타 – 미시시피 – 미주리 – 몬태나 – 네브래스카 – 네바다 – 뉴햄프셔 – 뉴저지 – 뉴멕시코

블록 4 (제4권)

뉴욕 – 워싱턴

블록 5 (제5권)

노스캐롤라이나 – 노스다코타 – 오하이오 – 오클라호마 – 오리건
– 펜실베이니아 – 로드아일랜드 – 사우스캐롤라이나

블록 6 (제6권)

사우스다코타 – 테네시 – 텍사스 – 유타 – 버몬트 – 버지니아 – 웨
스트버지니아 – 위스콘신 –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는 바람과 얼음과 거리의 땅이다. 자연이 다스리고
사회는 그 뒤를, 흔히 한참 뒤쳐져 따라가는 그런 곳 가운데 하나
다. 땅과 목축,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구역, 작은 마을들, 닫힌 공동
체들, 너무 오래 계속되는 겨울, 그리고 금세 끝나 버리는 기회의
주다.

여기서 여성은 이런 것들 사이에서 산다.

– 엄청난 고립 – 멀리 떨어진 서비스 – 극한의 기후 – 무거운 가족
내 역할 – 최소한의 일자리 – 짓눌린 원주민 공동체 – 숨겨진 농촌
의 빈곤

사우스다코타는 약하지 않다. 무자비하게 구체적이다. 그리고 그
구체성 속에서 여성은 당연한 존재로 여겨진다.

라코타 원주민 보호구역의 여성 – 38

세

파인리지는 벌어진 상처다. 극심한 가난, 실업, 허약한 학교, 중독,
그리고 아물지 않은 역사적 트라우마.

네 아이의 엄마인 서른여덟 살 Alana는 오글랄라 라코타 부족에
속한다. 그녀는 작은 학교에서 일한다. 그녀의 하루는 가족과 일과
공동체와 끊이지 않는 비상 상황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곡예다.

많은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도움이 도착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오래된 고통과 불안정한 현재를 안고 산다.

그녀의 부재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이다.

국가는 한 민족을 떠받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두기 위해 보호구역을 만들었다.

그리고 라코타 여성은 자기 것이 아니어야 할 짐을 진다.

동부의 농촌 여성 - 52세

주의 동부에는 거대한 농장들이 있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 가축, 기계, 그리고 결코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장부.

Julie는 그런 농장 가운데 한 곳에서 살며 일한다. 그녀는 남편을 '돕는' 것이 아니다. 일의 절반을, 아니 그 이상을 한다.

- 가축을 돌본다 - 트랙터를 몬다 - 장부를 맡는다 - 대가족의 식사를 짓는다 - 기후 비상 상황을 처리한다 - 얼어붙는 겨울을 견딘다 - 대차대조표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 천 가지 일을 한다

그녀의 부재는 문화적이다.

그녀의 일은 필수적이지만 '가사'로 규정된다. 가사는 개뿔. 그것은 고되고 끊임없는 농사일이다.

소도시의 여성 - 44세

중서부의 중간 규모 도시들에서 삶은 조용해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을 갉아먹는 조용함이다.

Karen은 래피드시티에 산다. 그녀는 대형 슈퍼마켓의 계산원으로 일한다. 최저임금, '업무상 필요에 따른' 유동 근무, 오르는 물가, 몇 안 되는 대안.

그녀의 삶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 반복되는 일 - 먼 이동 거리 - 문화 활동 없음 - 이곳 사람들이
고립되어 살기에 몇 안 되는 우정 - 갇혀 있다는 끊임없는 느낌

그녀의 부재는 지리적이고 정서적이다.

할 일이 모자라지는 않다. 나머지 모든 것이 모자란다.

새 출발을 하러 온 여성 - 31세

많은 여성이 새로 시작할 만한 저렴한 곳을 찾아 사우스다코타에
온다. 싼 집세, 조용한 거리, 평화의 환상.

Emma도 그중 한 사람이다. 그녀는 삶이 너무 비쌌던 서부 해안에
서 왔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다 진실을 알게 되었다: - 공동체 없음 - 지원 없음 - 최소한
의 일 - 엄청난 외로움 - 지치게 하는 겨울 - 모든 것으로부터의
거리.

그녀의 부재는 관계의 부재다.

그녀는 자리를 찾았지만, 삶은 찾지 못했다.

에필로그 - 사우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는 버팀의 땅이다. 그리고 여성은 가장 먼저 버티고
가장 나중에 인정받는다.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농장에서, 작은 마을에서, 그녀의 삶은 안전
망 없는 곡예다. 한 번 발을 헛디디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여성에게 엄청난 역할을 맡겨 놓고는 그것을 홀로 감당하도록 내
버려 두는 주다.

성찰 - 사우스다코타

이곳에서 여성의 부재는 직접적인 사회 갈등에서 생기지 않는다.
세 가지 요인의 합에서 생긴다.

- 광대하고 고립시키는 땅 - 무겁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 - 경직되고 당연시되는 역할

여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고투가 '정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다.

이 장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한다. 사우스다코타는 여자들이 일하지 않는 곳이 아니다. 여자들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가장 적게 인정받는 곳이다.

테네시

테네시는 음악과 먼지와 산의 주, 바이블 벨트와 들판의 주, 현대적이 되려고 애쓰는 도시들과 결코 변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내륙의 주다. 여성이 서로 반대되는 두 힘 사이에 끼여 사는 곳이다. 현대성의 압력(내슈빌, 멤피스)과 전통의 벽(그 밖의 모든 곳).

도시들은 자란다. 교외는 정체된 채 남아 있다. 종교는 정치 속으로 들어가고, 정치는 사생활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여성은 오래된 규칙, 낮은 임금, 부족한 서비스, 그리고 대가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공동체 사이에 갇힌다.

방문하기에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살기에는 복잡한 곳이다.

내슈빌의 여성 - 29세

내슈빌은 컨트리 음악의 수도이지만, 환상의 수도이기도 하다. 수천 명의 젊은이가 '크게 성공하려고' 이곳에 오고, 결국 저임금 일자리와 고된 밤 생활과 끝없는 교대 근무에 이른다.

Jessica는 신인 아티스트들이 매일 밤 공연하는 바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한다. 자정을 넘기는 교대 근무를 하고,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고, 말이 너무 많은 손님들에게 미소 짓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간다.

도시를 음악을 이야기한다. 그녀는 집세를 이야기한다.

그녀의 부재는 경제적이고 문화적이다.

그녀는 꿈에 연료를 대는 시스템의 일부이지만, 그 꿈에는 다가갈 수 없다.

MEMPHIS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 43

세

MEMPHIS는 거대한 영혼을 지닌 도시다. 블루스, 술, 흑인의 역사.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평등한 도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Aisha는 어려운 동네의 초등학교에서 일한다. 많은 가정이 벼랑 끝에서 살고, 많은 아이가 교육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온다.

그녀는 모든 것을 떠받친다: – 학급 문제 – 부재하는 가정 – 자금 부족 – 복잡한 동네 – 전적인 책임.

그녀의 부재는 사회적이고 인종적이다.

그녀는 공동체의 중심에 있지만, 국가는 그녀를 학교라는 기계의 한 부품으로만 여긴다.

농촌의 여성 – 50세

내슈빌과 MEMPHIS를 벗어나면 더 거친 테네시가 있다. 가난한 마을들, 흩어진 집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가게들, 몸으로 하는 노동, 그리고 유일하게 존재하는 기관인 교회들.

Brenda는 남부 애팔래치아의 작은 마을에 산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랐고, 다 큰 자식이 둘 있으며, 일이 있다 없다 하는 남편이 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돌본다: – 집 – 연로한 부모 – 장보기와 불일 – 집수리 – 가게에서의 간헐적인 교대 근무.

그녀의 부재는 지리적이다.

그녀는 기회의 지도 바깥에서 산다. 그녀에게는 대안이 없다. 그녀에게는 여유가 없다.

민간 의료에 갇힌 여성 – 37

세

테네시는 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최악의 의료 체계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비용, 미미한 지원, 그리고 수많은 민간 병원.

Michelle은 진료소 보조원으로 일한다. 매일 그녀는 돈을 낼 수 없는 환자들, 치료를 미루는 사람들, 너무 늦게 도착하는 엄마들을 본다.

하지만 그녀 역시 그 한가운데에 있다. 최소한의 보험, 부족한 월급, 개인 의료비 빚.

그녀의 부재는 의료적이다.

그녀는 돌봄의 일을 하지만 자신은 치료를 받을 여유가 없다.

에필로그 – 테네시

테네시는 겉으로는 변하지만 속으로는 경직된 채 남아 있는 주다.

대도시는 새로운 리듬을 강요하고, 농촌은 오래된 전통을 강요한다. 그 한가운데에서 여성이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

– 허약한 가정 – 불안정한 경제 – 부실한 교육 – 감당할 수 없는 의료 – 심판하는 종교 – 부족한 임금

그녀는 어디에나 있지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

성찰 – 테네시

이곳에서 여성의 부재는 이중의 무게에서 생긴다. 역사의 무게와 종교의 무게.

여성은 보호도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오래된 의무와 현대의 문제 사이에서 산다.

여성의 회복력이 마치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곳이다. 그렇지 않다.

이 장은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피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 여성의 강함은 그녀가 받아야 할 것을 주지 않을 핑계가 아니다.

텍사스

텍사스는 모든 면에서 거대하다. 땅, 돈, 종교, 자부심, 모순. 가장 부유한 주 가운데 하나이면서 동시에 가장 불평등한 주 가운데 하나다. 뒤를 돌아보는 정치적 사고방식을 지닌 경제 강국. 여성이 이런 것들 한가운데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곳이다.

– 무거운 법률 – 경직된 가족 내 역할 – 감당할 수 없는 도시 – 끝 없는 교외 – 숨겨진 농촌의 빈곤 – 필수적이지만 무시당하는 이민자 공동체 – 오르는 물가 – 부족한 보호

텍사스는 바깥에서 보면 놀랍다. 안에서 겪어 보면 놀랍지 않다.

휴스턴의 라틴계 여성 – 33세

휴스턴은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도시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가혹한 도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Maribel은 엘살바도르 출신이다. 그녀는 노인 요양 센터에서 일한다. 교대 근무는 고되고, 지원은 거의 없으며, 교통 체증이 매일 삶의 몇 시간씩을 잡아먹는다.

휴스턴은 거대하다. 엄청난 거리, 믿을 수 없는 버스, 극한의 날씨. 여기서는 이동하는 것 자체가 일이다.

Maribel은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아이들을 키우고, 모든 것을 건딘다.

그녀의 부재는 경제적이고 도시적이다.

도시는 그녀를 이용하지만 보호하지 않는다.

유전 지대의 백인 여성 - 41세

석유 도시들은 겉으로만 부유하다. 그 뒤에는 파괴적인 교대 근무, 사고, 마약, 그리고 허약한 가정이 있다.

Amy는 오데사에 산다. 그녀의 남편은 시추 시설에서 일하며, 몇 주씩 사라졌다가 망가지거나 날이 선 채로 돌아온다.

그녀는 모든 것을 한다: - 아이들 - 집 - 청구서 - 비상 상황 - 대가족 - 혼돈 - 끊임없는 긴장.

석유의 부는 결코 그녀의 손에 닿지 않는다.

그녀의 부재는 산업적이다.

텍사스는 석유를 기리지만, 그 인간적 대가를 짊어지는 사람들은 기리지 않는다.

의료 보호 없는 여성 - 35

세

텍사스는 여성의 의료에 관해 극도로 엄격한 법을 가지고 있다. 접근은 어렵고, 비용은 높고, 서비스는 적다. 많은 여성에게 유일한 선택지는 어떻게든 버티는 것이다.

서른다섯 살 Chelsea는 러벅에 산다. 그녀는 사무직 일자리가 있지만 보험은 최소한이고, 제대로 된 진료 한 번 한 번이 빛이 된다.

그녀에게는 모른 척하는 만성 통증이 있다. 몇 년째 미뤄 온 검사들이 있다. 그녀는 병보다 청구서가 더 무섭다.

그녀의 부재는 위생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이다.

국가는 그녀의 몸을 통제하지만 치료하지는 않는다.

서류 미비 이민자 여성 - 28

세

Carolina는 샌안토니오에 산다. 그녀는 사무실과 집을 청소하는 일을 한다. 현금으로. 언제나 현금으로.

두려움은 끊이지 않는다. 경찰에 대한, 이민국에 대한, 착취하는 고용주에 대한, 심판하는 이웃에 대한 두려움.

그녀에게는 기술도, 힘도, 지성도 있지만, 권리는 없다. 주에게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시에게 그녀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녀의 부재는 법적이다.

텍사스에서 이민자 여성은 산업 분야 전체를 움직이지만, 아무도 그녀를 인정하지 않는다.

에필로그 - 텍사스

텍사스는 크고 모순적이다. 부유하면서 가난하고, 현대적이면서 뒤쳐져 있고, 강력하면서 무자비하다.

여성은 이 주의 허약한 부분을 붙들고 있다: - 감당할 수 없는 도시 - 끝없이 뺏어 나가는 교외 - 석유 시추 시설 - 가난한 학교 - 사람이 넘치는 집 - 낮은 임금 - 제약하는 법.

그녀는 어디에나 있지만, 언제든지 버려도 되는 존재로 여겨진다.

성찰 - 텍사스

이곳에서 여성의 부재는 세 거대한 힘의 결합에서 생긴다. 경제, 문화, 정치.

텍사스는 여성이 스스로의 의지로 강해져야 하는 곳이다. 자유는 남자들에게 약속되고, 버팀은 여자들에게 요구되는 곳.

여성을 기둥으로 요구하면서 대체 가능한 자원으로 취급하는 주다.

텍사스는 여성을 지우지 않는다. 삼킨다.

유타

유타는 하나의 역설이다. 사람들은 그곳을 완벽한 주로 본다. 대가족, 조용한 도시, 장관을 이루는 산, 어디에나 있는 질서. 이 겉모습 뒤에는 엄청난 사회적 압력이 있다. 특히 여성에게. 모르몬교회의 지배적인 존재는 경직된 역할과 정확한 기대, 그리고 이래야만 하는 여성상을 만들어 낸다.

– 엄마 – 아내 – 교육자 – 언제나 웃는 얼굴 – 언제나 대기 중 – 결코 갈등하지 않는

그리고 그 종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조차 그 그림자 아래에서 산다.

유타는 안전하다. 그렇다. 하지만 보이는 만큼 자유롭지는 않다.

압박 속의 모르몬교 여성 – 31세

Emily는 전통적인 모르몬교 공동체에서 자랐다. 스물두 살에 결혼해 서른이 되기 전에 아이 셋을 낳았다. 그녀의 삶은 정확한 규칙들이 다스린다. 봉사, 가족, 충성, 질서, 평온.

겉으로 그녀는 흠잡을 데가 없다. 속으로 그녀는 지쳐 있다.

그녀는 불평할 수 없고, 도움을 청할 수 없고, 피곤하다고 말할 수 없다. “너는 피곤하면 안 되니까.”

그녀의 부재는 영적이고 문화적이다.

시스템은 그녀의 내면을 예정해 두지 않았다. 역할만 예정해 두었다.

시류를 거슬러 사는

비종교인 여성 - 39세 Sandra는 모르몬교도가 아니다. 그녀는 마케팅 일을 한다. 딸이 하나 있고, 이혼했으며, 자기만의 규칙대로 산다. 유타에서는 그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으로 여겨지기에 충분하다. 사회적 관계는 어렵다. 전통적인 가정들은 그녀를 끼워 주지 않고, 많은 우정은 피상적이며, 일터는 판단으로 가득하다.

그녀의 부재는 사회적이다.

틀 밖에 있다는 것은 무리 밖에 있다는 뜻이다.

라틴계 이민자 여성 - 34세

유타에는 거대하고, 흔히 보이지 않는 라틴계 인구가 있다. Ana는 식품 포장 공장에서 일한다. 12시간 교대 근무, 차가운 작업장, 얼어붙는 손, 낮은 임금.

지역 공동체는 예의 바르다. 그렇다. 하지만 거리를 둔다. 통합은 최소한이다. 서비스는 적다. 집값은 해마다 오른다.

Ana는 일하기 위해 살고 가족에게 돈을 보낸다. 그 이상은 없다.

그녀의 부재는 경제적이고 문화적이다.

그녀는 주라는 기계의 일부이지만, 주는 그녀를 인정하지 않는다.

산골 마을의 여성 - 50세

유타의 산악 지역에서 삶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살기에는 지극히 고되다.

Karen은 인구 2,000명의 마을에 산다. 그녀는 학교에서 일하며, 모든 일을 위해 몇 마일씩 이동한다. 의사, 슈퍼마켓, 약국.

공동체는 닫혀 있다. 외로움은 끊이지 않는다. 겨울은 길고, 춥고, 고요하다.

그녀의 부재는 지리적이다.

공간은 거대하지만, 그녀의 삶은 출구 없는 작은 방이다.

에필로그 - 유타

유타는 흠잡을 데 없는 이미지를 쌓아 올린 주다. 가족, 질서, 안정.

모두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미지 뒤에는 연약할 권리도, 선택할 권리도, 여유도 없이 경직된 체제를 떠받치는 여성들이 있다.

유타는 형식을 보호한다. 사람이 아니라.

성찰 - 유타

유타에서 여성의 부재는 갈등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부드러운 통제에서 온다. 당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미소와 함께 일러 주는 그런 통제.

여기서 여성은 완벽해야 한다.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완벽해야 한다.

이 장은 그것을 드러낸다. 어떤 곳은 안전하고,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면서도 당신의 숨을 앗아 갈 수 있다.

유타는 여성을 별하지 않는다. 이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없을 때 이끈다는 것은 지우는 또 다른 방식일 뿐이다.

버몬트

버몬트에는 숲과 나무로 지은 집, 끝없는 눈, 고요한 언덕, 모두가 모두를 아는 작은 마을들이 있다. 진보적이고, 평화롭고, 안전한 주

다. 하지만 고립되어 있고, 비싸고, 닿기 어렵고, 느린 속도 속에서 경직되어 있기도 하다.

여성은 세 가지 서로 다른 상황을 견딘다. – 지리적 고립 – 감당할 수 없는 생활비 – 실질적인 서비스의 부족

‘평온한’ 주로 자신을 파는 곳이지만, 그 평온은 흔히 대안이 없다는 사실의 결과일 뿐이다.

여기서 여성은 누군가 그녀를 지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닿지 않기 때문에 사라진다.

산속에서 홀로 사는 여성 – 47

세

Claire는 몬트필리어 근처 언덕 위의 집에 산다. 낭만적인 고독이 아니다. 진짜 고독이다.

겨울: 눈, 어둠, 얼어붙은 길. 여름: 거리, 가까이에 아무도 없음, 즉각적인 도움 없음.

그녀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한다: – 장작 – 자동차 – 계획된 장보기 – 집수리 – 비상 상황.

자유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것은 매일의 생존이다.

그녀의 부재는 지리적이다.

세상이 너무 멀리 있다.

지역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여성 – 35

세 버몬트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생각을 사랑한다. 협동조합, 짧은 공급망, 지역 생산물.

그 이미지 뒤에는 저임금 노동이 있다.

Emily는 농업 협동조합에서 일한다. 힘들고 추운 일이고, 임금은 변변찮다. 생활비는 하늘을 찌른다. 집세, 식비, 휘발유.

서사는 '버몬트는 모범'이라고 말한다. 그녀에게 버몬트는 어느 달이든 무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균형이다.

그녀의 부재는 경제적이다.

낭만적인 시선이 그녀의 진짜 노력을 지운다.

아무 지원 없이 가족을

떠받치는 여성 - 39세 Sarah는 벌링턴에 산다. 아이 둘, 작은 회사의 일자리, 그리고 있다 없다 하는 전남편.

버몬트는 진보적이다. 그렇다. 하지만 서비스는 느리고, 부족하고, 멀리 있다. 학교는 허덕이고, 의료는 비싸며, 재정 지원은 최소한이다.

매일이 소리 없는 전쟁이다. 모든 것을 혼자 꾸리고, 넓은 땅을 가로질러 다니고, 안전망 없이 비상 상황을 마주하는 전쟁.

그녀의 부재는 제도적이다.

주는 지원에 대해 많이 말하지만 주는 것은 적다.

도시를 떠나 새 출발을 하고 있다고

믿는 여성 - 31세 많은 이가 평화를 찾아 버몬트에 온다. 조용한 집, 자연, 그리고 더 느린 삶의 속도.

Olivia는 보스턴에서 왔다. 그녀는 균형을 찾으리라 생각했다. 그녀가 찾은 것은 치솟는 물가, 고립, 그리고 몇 안 되는 일자리였다. 풍경은 숨이 멎을 듯하다. 하지만 공동체와 활기와 기회가 필요하다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녀의 부재는 통합의 부재다.

버몬트는 맞아들이지만 열어 주지 않는다.

에필로그 - 버몬트

버몬트는 침묵이고, 맑은 공기이고, 사색이다. 하지만 거리이고,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고, 정서적 고립이기도 하다.

여성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작동하는 주의 틈새에서 산다.

- 돈 - 안정 - 인간관계 - 건강

이 모든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곳의 삶은 외롭고 가파른 길이 된다.

성찰 - 버몬트

버몬트에서 여성의 부재는 더 가혹한 주들에서처럼 뚜렷하지 않다. 더 미묘하다. 더 우아하다. 더 숨겨져 있다.

그것은 세 가지 요인에서 생긴다.

- 단순함의 신화, 고단함을 지운다 - 평온의 비용, 모두가 감당할 수는 없다 - 정서적 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고립시킨다

이 장은 걸러 내지 않고 말한다. 자연은 충분한 보호가 아니다. 그리고 침묵이 언제나 평화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저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버지니아

버지니아는 두 층위에 존재하는 주다: - 제도의 층위(워싱턴 DC가 옆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다) - 농촌의 층위(애플래치아와 낙후 지역)

미국 역사의 요람이지만, 현대의 불평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어디에나 있는 군대, 관료제, 북부에 집중된 부, 남서부의 가난, 역동적인 대학 도시들, 그리고 정체된 교외.

이곳의 여성은 세 개의 전선을 마주한다.

- 제도의 무게 - 전통의 무게 - 지역 간 격차의 무게

그녀는 주의 모든 곳에서 필수적인 존재이지만, 각 지역이 그녀에게 요구하는 역할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북부의 부유한 여성 - 34세

북부 버지니아는 워싱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터전이다. 공무원, 분석가, 연방 직원, 그리고 계약업체 사람들.

Elena는 정부와 연결된 회사에서 일한다. 좋은 월급, 경력의 전망, 불가능한 삶.

생활비는 극도로 높다. 통제를 벗어난 집세, 몇 시간씩 잡아먹는 교통 체증, 그리고 진을 빼는 근무 일정.

이곳의 여성은 가난하지 않다. 지쳐 있다.

그녀의 부재는 직업적이다.

모두가 구조를 돌아가게 하려고 그녀를 찾지만, 아무도 그녀를 완전한 소진으로부터 지켜 주지 않는다.

리치먼드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 39

세

리치먼드는 여전히 한 발을 역사 속에 딛고 사는 도시다. 인종 분리, 동네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 허덕이는 학교, 엄청난 격차.

Amina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다. 고된 교대 근무, 까다로운 환자들, 힘든 동네. 매일이 전력 질주다.

리치먼드는 다시 태어나고 있는 도시이지만, 그 재탄생은 언제나 백인 지역에 먼저 온다.

그녀의 부재는 인종적이고 사회적이다.

그녀는 시스템의 기둥이지만, 우선순위 목록의 맨 아래에 머문다.

애플래치아 농촌의 여성 - 50세

도시를 벗어나면 버지니아는 완전히 달라진다. 텅 빈 길, 산, 흩어진 집들, 뿌리 깊은 가난.

Linda는 와이즈 카운티 근처에 산다. 그녀는 가게에서 일하고, 아픈 어머니를 돌보고, 살림을 꾸린다. 가까운 곳에 의료 시설도, 대중교통도, 경제도 없다.

그녀의 삶은 온전히 그녀의 어깨에 얹혀 있다. 공동체는 작지만, 모두를 떠받칠 만큼 강하지는 않다.

그녀의 부재는 지리적이고 구조적이다.

그녀는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산다.

샬러츠빌의 여성 - 28세

샬러츠빌은 대학 도시다. 젊고, 지적이고, 진보적이다. 종이 위에서는 완벽하다.

현실에서는 아니다.

Maya는 캠퍼스 근처의 카페에서 일한다. 높은 집세, 낮은 임금, 혼란스러운 학생 생활, 안정성 제로.

여기서 문화는 풍요롭지만, 삶은 그렇지 않다.

그녀의 부재는 경제적이고 문화적이다.

그녀는 도시의 일부이지만, 도시의 풍요의 일부는 아니다.

에필로그 - 버지니아

버지니아는 서로 이어지지 않는 정체성들의 조각보다. 위로는 극단적인 부, 아래로는 극단적인 가난. 한쪽에는 현대적인 도시들, 다른 쪽에는 잊힌 애피라치아.

여성은 이 모자이크의 모든 조각 위에서 살지만, 아무도 그들을 진정한 주인공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녀는 필요할 때는 움직이고, 국가에 편할 때는 멈춰 서 있으며, 언제나 쓸모가 있다.

성찰 - 버지니아

이곳에서 여성의 부재는 내부의 분열에서 생긴다. 갈라진 땅, 무거운 역사, 균형을 잃은 경제.

여성은 이 모든 것을 붙여 두는 접착제이지만, 주는 그들을 사회의 원동력이 아니라 풍경의 일부로 취급한다.

이 장은 그것을 분명히 한다. 버지니아는 성장하고 있지만, 모두를 위해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대부분 떠받치고, 돌보고, 지키는 여성들이다. 아무도 그들을 지켜 주지 않는 동안에.

워싱턴

워싱턴은 하나의 주가 아니다. 완벽한 풍경으로 위장한 엔진이다.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초록, 숲, 물, 사진발 좋은 스카이라인의 시애틀을 본다. 안에서 겪는 사람들은 안다. 여기서 권력은 선언되지 않는다는 것을. 행사된다는 것을.

권력이 정치가 아니라 기술, 조정, 자본, 과학 연구, 그리고 인프라에서 나오는, 미국에서 몇 안 되는 곳 가운데 하나다. Amazon, Microsoft, Boeing, 태평양의 항구들, 대학들, 생명공학, 인공지능, 세계 무역. 서부 해안은 여기서 꿈꾸지 않는다. 여기서 실행한다.

워싱턴은 이런 주다.

– 알고리즘 하나가 시장보다 더 많은 것을 결정한다 – 연구소 하나가 카운티 하나 전체보다 더 많은 돈을 움직인다 – 항구 하나가 나라를 멈춰 세울 수 있다 – 스타트업 하나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 연구자 한 사람이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매니저 한 사람이 열 개 나라 노동자들의 속도를 바꿀 수 있다

그것은 권력이다. TV에 나오지 않는 종류의 권력. 소리를 내지 않는 종류의 권력. 침묵 속에서 짓고 부수는 종류의 권력.

이 무대에서 여성은 그저 단역이 아니다. 그들은 중심 토피바퀴이고, 두뇌이고, 전략이고, 운영이고, 순수한 지휘다. 그리고 그들은 비싼 대가를 치른다. 외로움, 번아웃, 끊임없는 압박, 사람을 빨아들이는 경력, 세상이 성과에 박수를 치는 동안 무너지는 사생활. 워싱턴은 연약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속도를 늦추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쓰러지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안다. 권력을 가까이에 서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그리고 여기서 당신의 대사가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겉모습과 영향력의 차이를 즉시 알아본다.

진정한 권력은 연출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책임이고, 위험이고, 침착함이고, 실수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워싱턴이다. 여성 권력의 고압 실험실. 정말로 지휘하는 여성들은 그것에 대해 말할 시간이 없다. 그것을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장은 그들의 초상이다. 쉴 틈을 주지 않는 주의 정상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는 스물두 가지 기술.

권위 있는 노트

“Bill과 Hillary Clinton 시절 내가 백악관을 드나들던 그 몇 해 동안—나는 그들이 만난 첫 칼라브리아 사람이었다—그들은 나를 늘 ‘Frega 씨’라고 불렀다. 다른 사람들은 Gillette에서의 내 과거 때문

에 나를 ‘Balde-man’으로 알았다. 두 개의 이름, 같은 무게. 정확함, 믿음직함, 그리고 권력에 대한 두려움 없음. 어떤 방들을 한번 보고 나면, 누가 정말로 지휘하고 누가 그저 연기하는지 바로 알게 된다.”

Elena – AI 연구 책임자 (레드먼드, 43)

세)

권력: 극도로 높음 대가: 그녀의 사생활 Elena는 연구자 이백 명을 조율한다. 알고리즘, 윤리, 자금, 워싱턴 DC로부터의 압력. 그녀는 제품을 발명하지 않는다. 미래의 상업용 인공지능의 토대를 놓는다.

그녀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다. 정책 한 줄이 바뀌면 시장 하나가 통째로 바뀐다.

그녀는 하루 14시간 일하고, 잠은 적게 자며,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권력, 진짜 권력은 당신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 보통의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준다.

Sara – Amazon 글로벌 물류 부사장 (시애틀, 46)

세)

권력: 행성 규모의 운영 통제 대가: 인간적 균형 없음

수천 명이 그녀에게 의지한다. 항구, 비행기, 로봇 물류 허브, 배송 알고리즘. 그녀가 무언가를 결정하면 열네 개 나라의 배송 시간이 바뀐다.

사람들은 그녀를 ‘세상을 움직이는 여자’라고 부른다. 그녀는 잘 웃지 않는다. 그럴 시간이 없다.

이곳의 권력은 무자비하다. 실수는 두 번 하지 않는다. 때로는 한 번도.

Claudia – 바이오테크 CEO (벨뷰, 39세)

권력: 유전학, 투자자, 혁신 연구 대가: 외과 수술 같은 고독
Claudia는 기업 가치 10억 달러의 바이오테크 회사를 이끈다. 실험적 치료법들이 희귀 질환을 치료하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

그녀는 연인을, 친구를, 삶의 일부를 잃었다. 얻은 것은 단 하나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비전.

권력은 돈이 아니다. 권력은 세상이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다.

Tanya – 시애틀항 책임자 (50세)

권력: 글로벌 인프라 대가: 끊임없는 압박

항구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 그녀도 마찬가지다.

컨테이너, 보안, 중국·한국·미국 기업들과의 관계. 이곳의 권력은 화려하지 않다. 혼돈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녀가 실수하면 갈비뼈 하나가 통째로 멈춘다.

이것이 이미지와 실체의 차이이다.

Melinda French Gates – 청소부에서

세계적 권력으로

권력: 보건, 교육, 평등에 대한 세계적 영향력. 대가: 인간이기를 멈추지 않으면서 상징이 되는 것.

진실은 이렇다, NANDO. Melinda는 권력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Duke에서의 학비를 대려고 작은 일들을, 청소까지 했다. 평범한 가정, 재산 제로, 권력 인맥 제로. 모든 것이 한데 모였다: –

어려운 학위 – 아직 작은 회사였던 Microsoft에서의 첫 직장 – 실력에 의한 내부 승진 – 오늘날 수십억을 움직이는 자선의 비전.

오늘 그녀는 결정이 내려지는 테이블에 앉는다: – 세계 백신 접종 – 여성 보건 정책 – 교육받을 권리 – 전략적 투자 – UN 프로그램.

진짜 권력. 플래시 속에서 보이는 종류가 아니다. 삶을 바꾸는 종류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가 그토록 중요하다. 밑바닥에서 시작해 세상의 여성 가운데 극소수만이 닿는 곳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Naomi – 빅테크 최고보안책임자 (시애틀, 45

세)

권력: 글로벌 보안, 사이버 정보 대가: 직업적 편집증

Naomi는 결코 제대로 잠들지 않는다. 그녀는 서부 해안 기술 대기업 가운데 한 곳의 디지털 보안을 책임진다. 프로토콜을 정하고, 공격을 예측하고, 침입을 막고, 위기를 관리한다.

그녀에게는 육백 명의 팀이 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진짜 권력 = 가슴을 찢는 책임. 그녀가 실수하면 은행과 병원과 정부가 서서히 멈추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한다. 하지만 모두가 그녀가 지키는 세상을 쓴다.

Jennifer – Microsoft Cloud CFO (레드먼드, 51

세)

권력: 세계적인 숫자, 전략, 투자 대가: 정신적 휴식 없음

그녀는 수십억을 공책의 줄처럼 다룬다. 주식과 시장과 파트너십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다.

그녀에게는 무서운 능력이 있다. 남들보다 먼저 위험을 본다.

사람들은 그녀를 '손이 흔들리지 않는 여자'라고 부른다. 그녀가 없다면 클라우드 산업 전체가 오늘날만큼 강하지 못할 것이다.

대가는? 결코 멈추지 않는 머리. 그리고 몇 년째 쉬게 해 달라고 애원하는 몸.

Mei Ling – Google Deep-mind 임원 (시애틀

허브, 38세)

권력: 첨단 AI 연구 대가: 엘리트 안에서의 고립

Mei Ling은 신동이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어린 천재였고, MIT를 졸업했고, 그다음 첨단 AI로 갔다. 지금 그녀는 업계에서 가장 두려움과 존경을 받는 팀 가운데 하나를 이끈다.

그녀는 세상을 하나의 고급 알고리즘으로 본다. 속도, 정밀함, 비전.

하지만 그녀의 사회생활은 사막이다. 그녀의 외로움은 그녀의 재능에 비례한다. 권력은 짓지만, 떼어 놓는다. Isabelle – Gates Foundation 운영 책임자 (시애틀, 47세) 권력: 세계적 영향력 대가: 얼어붙은 감정 Isabelle은 말이 많지 않다. 그녀는 조직한다. 계산한다. 병원과 백신과 학교와 여성 프로그램에 자금을 나눈다. 그녀는 낯익은 얼굴이 아니다. 그녀는 수십억 달러 뒤에 있는 물류의 두뇌다. 정부, NGO, 과학자, 장관들과 함께 일한다. 이 수준에 있으면 친구는 없다. 서류만 있을 뿐이다. 그녀의 인간성은 보호를 위해 숨겨진 채로 남아 있다. Carla – 태평양 북서부 해안경비대 지휘관 (타코마, 44

세)

권력: 바다, 구조, 연방 작전 대가: 닳아 버린 몸 Carla는 폭풍, 선박, 불법 밀거래, 비상 상황에 맞서는 팀들을 지휘한다. 그녀는 강철의 여자,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남자들에게서조차 존중받는 여자다. 그녀는 생명을 구했고, 환경 재난을 관리했고, 거친 바다에서 야간 작전을 이끌었다. 이곳의 권력은 몸으로 하는 것이다. 더럽다. 진짜다.

대가는? 그녀의 몸은 보이지 않는 흉터로 뒤덮여 있다.

Andrea – Boeing 최고엔지니어링책임자

항공 부문 (에버렛, 49세)

권력: 세계 항공 대가: 수백만 명의 안전을 어깨에 지는 것

Andrea는 항공 솔루션을 설계한다. 그녀가 부품 하나에 서명하면 그 부품은 지구 전체 위를 난다. 그녀는 그런 규모의 엔지니어링 팀을 이끄는 아주 드문 여성 가운데 하나다.

그녀에게는 소리치지 않는 권위가 있다. 망설이지 않고 가늠하는 눈빛이 있다. 나사 하나도 틀려서는 안 되는 사람의 신경이 있다.

대가는? 책임을 진 사람만이 아는, 끊임없고 소리 없는 두려움.

Sofia – UW 메디컬 응급의학과

책임자 (시애틀, 52세)

권력: 진짜 의료, 생명을 구하거나 무너뜨리는 결정 대가: 닳아 없어진 영혼

Sofia는 혼돈이 터질 때 병원을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다. 그녀는 미용 의학에서 일하지 않는다. 피와 과다 복용과 사고와 정신과 위기와 극심한 가난이 터져 나오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일한다.

이곳의 권력은 무자비하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결정하라. 그리고 그녀는 결정한다. 매일. 20년 동안.

대가는? 이제 그녀를 놀라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것은 한 인간에게 값비싼 일이다.

Haruni – 타코마항 보안 &

무역 책임자 (45세)

권력: 국제 무역과 보안 대가: 끊임없는 지정학적 압박 속의 삶

Haruni는 이런 곳들과 대화하는 여자다: – FBI– 해군– 일본 기업들– 한국 기업들– 내부 조정– 연방 기관들.

그녀는 합법적인 물동량, 검사, 선박 안전, 국제 감사를 관리한다. 서부 해안을 떠받치는 사슬의 일부를 통제한다.

대가는? 조용한 밤은 없다. 들어오는 배 한 척 한 척이 개인적인 책임이다.

Zhen – 수십억 달러 규모 핀테크

플랫폼의 CTO (벨뷰, 36세)

권력: 진짜 돈, 거래, 무너져서는 안 되는 시스템 대가: 돈보다 무거운 윤리

Zhen에게는 '기술 분야의 여성'이라는 소셜 미디어 서사를 위한 시간이 없다. 그녀 자체가 기술이다.

그녀는 위험이 없어야 하는 금융 시스템을 관리한다. 매분 수백만을 움직인다. 그녀에게는 경영진마저 압도하는 기술적 권력이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조용한 일격'이라고 부른다. 그녀가 말하면 결정이 바뀐다.

대가는? 남들의 타협으로부터 매일 지켜 내야 하는 윤리.

Miriam – 워싱턴주 순찰대

디지털 범죄 수사대장 (40세)

권력: 보이지 않는 수사 대가: 매일 인간의 어둠을 보는 것

Miriam은 아무도 모르지만 모두가 두려워하는 부대를 지휘한다. 사이버 범죄, 소아성애, 국제 사기, 디지털 폭력, 도용된 신원. 시스템에 침투하고, 찾아내고, 되찾고, 해체하는 사람이 바로 그녀다.

진짜 작전의 권력. 화려하지 않다. 필요하다.

대가는? 그녀의 정신은 누구도 보아서는 안 될 싸움을 치른다.

Laila – 글로벌 클라우드 & AI 전략 책임자

(시애틀, 48세)

권력: 미래의 기술 규칙을 정한다 대가: 끊임없는 정신의 전쟁 속에서 사는 것

Laila는 매니저가 아니다. 그녀는 디지털 생태계의 설계자다. 정부, 다국적 기업, 기관들과 대화한다. 세계 표준이 될 정책을 쓴다.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사무실이 있지만, 그녀의 정신은 다른 행성에 산다. 진정한 권력이란 이것이다.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기 전에 길을 정하는 것.

대가는? 멈춤이 없다. '나중'이 없다. 평범함이 없다.

Rachel – 우주 제조 운영 매니저

(켄트, 44세) 권력: 민간 우주 산업 대가: 지구에서의 삶과 연결이 끊어지는 것

Rachel은 궤도 비행체의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운영을 이끈다. 위성, 모듈, 센서.

무언가가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새벽 세 시에 그녀에게 전화한다. 모든 것이 작동하면 아무도 그녀를 언급하지 않는다.

우주에서의 권력은 잔인하다. 실수 하나가 1초 만에 4억 달러를 태운다.

그녀는 그것을 안다. 그리고 매일 그 경계 위에서 산다.

Noor – 주 에너지 정책

부서 책임자 (올림피아, 51세) 권력: 주 전체 에너지의 운명을 결정한다. 대가: 모든 압력 단체에게 미움받는 것.

Noor는 기후와 교통과 전기 요금과 산업의 삶을 바꾸는 문서에 서명하는 여자다.

환경 운동가들은 그녀가 너무 느리다고 여긴다. 산업계는 그녀가 너무 가혹하다고 여긴다. 정치인들은 그녀를 두려워한다. 그녀가 그들보다 사안을 더 잘 알기 때문이다. 고위 관료의 권력은 언론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곳은 바로 거기다.

Noor는 지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지휘한다. 대가는? 완벽한 표적이 되는 것.

Helena – 주 정부 디지털 운영

책임자 (올림피아, 46세)

권력: 인프라, 데이터, 공공 서비스 대가: 너무 작은 팀으로 주 전체를 지켜야 하는 것

Helena는 핵심 시스템들을 조율한다. 디지털 신원, 인프라, 보건 서비스, 학교 네트워크, 비상 상황.

그녀는 자기 시스템에 대한 공격 한 번이 수백만 명에게 혼돈을 뜻한다는 것을 안다. 그녀의 전화는 결코 꺼지지 않는다. 절대로.

그녀는 '권력의 회색 지대'에서 일하는 여자다. 정치도 아니고 민간도 아닌 곳.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그것에 달려 있는 사람.

대가는? 끊임없는 불확실성의 느낌.

Dana – 시니어 벤처 캐피털리스트, 30억 달러

운용 (시애틀, 42세)

권력: 스타트업 세계에서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결정한다 대가:
느끼는 것은 적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많은 기계가 되는 것

Dana는 기술 기업에 투자한다. 그녀가 'NO'라고 말하기만 하면 프로젝트 하나가 무너진다. 'YES'라고 말하기만 하면 일자리 쉼 개가 생긴다. 그녀에게는 재능을 보고 감정 없이 가늠하는 사람의 외과의 같은 냉정함이 있다. 그녀는 창업 낭만주의의 정반대다.

자본의 권력은 단순하다. 돈을 가진 자가 남들의 미래를 다스린다.

그녀는 떨지 않고 그렇게 한다. 대가는? 감정은 사무실 밖에 머문다. 언제나.

에필로그 — 워싱턴

워싱턴은 그저 작동하기만 하는 주가 아니다. 지휘한다. 구호나 회의로가 아니라, 기술과 조정과 연구와 인프라를 움직이는 손으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여성은 자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차지한다.

알고리즘, 병원, 항구, 에너지, 우주, 보안, 자본을 운영하는 것은 그들이다. 그들에게는 자기 이야기를 할 시간도, 호감을 사는 데 대한 관심도 없다.

그들의 권력은 시끄럽지 않다. 구조적이다. 코드와 계약과 표준과 프로토콜 속에 숨어 있다. 사진에 찍히지 않고 결정하는 권력이다.

워싱턴은 부드러운 주가 아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소모하는 복잡한 기계 장치다. 그리고 그 높이에서 버티는 여성들은 상징이 아니다. 기둥이다.

이 장이 그것을 보여 준다. 진정한 권력은 존재하며, 여기서 그것은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

성찰 — 워싱턴

워싱턴에서 여성의 권력은 친절에서 나오지 않고 역량에서 나온다. '여성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에서 나오지 않고, 이곳의 많은 여성이 산업 분야 전체를 옮길 수 있는 두뇌를 가졌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워싱턴은 당신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주다. 그리고 이 환경을 지배하는 여성들은 극도로 비싼 대가를 치른다. 외로움, 과잉 성과, 괄호 속으로 줄어드는 생활, 감정이 아니라 성과 위에 세워진 정체성.

권력, 진정한 권력은 상이 아니다. 짐이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짊어진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는다. 버텨 낸다. 그리고 겉모습과 중요성의 차이를 매일 대가로 치른다.

이 주에는 '거의'를 위한 자리가 없다. 수준을 지키든가, 아니면 소모되든가.

워싱턴의 여성들은 그 수준에 있다. 그리고 자주 그것을 넘어선다.

작가의 편지

나는 언젠가 그것을 쓰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권력을 가까이에서 겪었다. 백악관에서, Bill과 Hillary Clinton이 세상의 중심이던 시절, 그들은 나를 'Frega 씨'라고 불렀다. 그들이 만난 첫 칼라브리아 사람. 다른 사람들은 Gillette에서의 내 과거 때문에 나를 'Balde-man'이라고 불렀다. 자르는 사람, 마무리하는 사람, 결코 선을 놓치지 않는 남자.

그때부터 권력은 나를 감동시키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알아본다. 그것을 잔다. 그것이 진짜일 때와 그저 연극일 때를 안다. 워싱턴에서 연극은 쓸모가 없다. 여기서 권력은 항구의 강철처럼 구체적

이고, 서버처럼 빠르고, 잘못 조정된 알고리즘처럼 연약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결정처럼 값비싸다.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진 여성들은 단순한 한 가지를 기억한다. 권력은 특권이 아니다. 책임이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보여 준다.

웨스트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상처 입은 곳 가운데 하나다. 산, 광산, 오피오이드, 실업, 고립된 교회, 허약한 학교, 부서진 가정. 모든 것을 잃은 주 가운데 하나다. 산업을, 젊은이들을, 건강을, 신뢰를.

여기서 여성은 사는 것이 아니다. 잔해를 붙들고 있다.

문 닫은 광산의 여성 - 53세

마을들 전체가 석탄으로 먹고살았다. 그러다 모든 것이 문을 닫았다. 사람들은 남았지만 일자리는 남지 않았다.

Linda는 광부의 아내였다. 지금 그녀는 작은 일자리 두 개로, 폐병을 앓는 남편과, 세상을 떠난 아들과 함께 산다.

그녀의 부재는 산업적이다. 국가는 산업 전체를 버렸고, 남은 것을 거두는 일을 여성들에게 떠넘겼다.

오피오이드 위기 속의 여성 - 37세

웨스트버지니아는 미국 오피오이드 참사의 진원지다. Emily는 언니를 잃었고, 남동생은 회복 중이며, 남편은 중독과 제정신 사이에서 찢겨 있다.

그녀는 지역 센터에서 일하며, 나라의 나머지가 외면하는 것을 매일 본다.

그녀의 부재는 의료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이다. 그녀는 한 세대를 파괴한 시스템의 희생자다.

깊은 애플래치아의 여성 - 44세

고립시키는 산, 가로등 없는 길, 불가능한 거리.

Karen은 인구 칠백 명의 마을에 산다. 학교는 가난하고, 의료는 멀리 있으며, 경제는 정체되어 있다.

그녀의 삶은 풍경처럼 멈춰 있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는다.

그녀의 부재는 지리적이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에서 가르치는 여성 - 29

세

이곳에서 젊은 교사는 극히 드물다. Megan은 다른 아무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다.

그녀의 학급에는 트라우마를 입은 아이들, 허약한 가정, 그리고제로인 자원이 있다. 순수한 용기지만, 시스템은 그녀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그녀의 부재는 제도적이다. 국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

에필로그 - 웨스트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는 잔인한 깨우침이다. 경제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무너진다.

여성은 유일한 기둥으로 남았다. 하지만 기둥 하나로는 산 하나를 떠받치기에 충분하지 않다.

성찰 – 웨스트버지니아

이곳에서 여성의 부재는 버려짐에서 비롯된다. 이렇게까지 썩도록 내버려진 곳은 다른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여성들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다. 돌봄, 생존, 침묵, 우리처럼 옥죄는 전통.

여기서 버팀은 미덕이 아니다. 필요하다.

위스콘신

위스콘신은 지리적이고 정서적인 역설이다. 농업과 공업의 주, 경직되면서 온화하고, 광활하면서 숨 막히는 주. 맥주, 우유, 공장, 숲, 얼어붙은 호수. 부유한 대학들, 텅 빈 시골, 숨 쉬려고 애쓰는 도시들. 여기서 여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상으로 여겨진다. 마치 생존의 짐이 출생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낙농 여성 – 45세

위스콘신은 우유다. 하지만 1갤런 한 통 한 통 뒤에는 휘어지는 허리, 비명을 지르는 무릎, 수십 년 동안 일요일을 가져 보지 못한 삶들이 있다.

Sarah는 새벽 4시에 일어난다. 미덕 때문이 아니다. 필요 때문이다. 젖을 짜야 할 소들,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기계들, 끝나지 않는 서류 작업, 길과 낙관을 지워 버리는 눈. 농업이 일하기를 멈추고 죽음의 복권으로 변했을 때 많은 남자가 무너졌다. 그리고 여자들은? 한 번도 선장으로 불리지 않은 채 키를 잡았다.

Sarah의 부재는 농업적이고, 구조적이고, 잔인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한다. 가족 사업을 떠받치고 있다. 그런데도 사회적으로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수입을 만들어 내는 유령이다.

밀워키의 여성 - 34세

밀워키는 벌어진 상처다. 가혹하고, 불평등하고, 층층이 나뉜 도시. 치솟는 빈곤율, 버려진 학교, 용납할 수 없는 폭력.

Jasmine은 교사도, 자금도, 미래도 부족한 학교에서 일한다. 그녀에게는 아이 둘과, 그녀가 필요로 하지 않을 때만 곁에 있는 파트너가 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아무도 꿈을 이야기하지 않는 동네를 지나간다. 여기서 관심사는 그 주를 버텨 내는 것이다.

그녀의 부재는 도시적이다.

도시는 그녀를 이용하고 소모한다. 도시는 그녀를 '강하다'고 규정한다. 칭찬으로 위장한 모욕이다.

공장의 여성 - 51세

위스콘신의 산업은 더 이상 한때 안정과 은퇴를 약속하던 그 산업이 아니다. 오늘날 그것은 룰렛 게임이다. 더 긴 교대 근무, 강제 초과 근무, 그리고 생활비가 오르는 동안 떨어지는 임금.

Maria는 생산 라인의 베테랑이다. 닳은 손목, 망가진 허리, 여유 제로. 그녀는 같은 동작을 수천 번 되풀이한다. 마치 그녀의 몸이 교체 가능한 기계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의 부재는 산업적이다.

그것은 아무도 공식 연설에서 그녀를 언급하지 않는데도 모든 것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노동자의 보이지 않음이다.

추운 북부의 여성 - 57세

북부 위스콘신은 또 다른 행성이다. 끝없는 숲, 몇 미터 두께의 얼음 아래 잠잠한 호수, 당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 고독.

Karen은 슈퍼리어 근처의 오두막에 산다. 눈이 반년 동안 이어진다. 거리는 형벌이다. 몇 마일의 텅 빈 길이 모든 것을 문명과 갈라

놓는다. 여기서 여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추위 속의 수증기처럼 천천히 녹아 없어진다.

그녀의 부재는 기후적이고 지리적이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한다.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기 때문이다.

에필로그 - 위스콘신

주는 작동한다. 공장은 돌아간다. 농장은 생산한다. 도시는 충격을 견딘다. 그리고 언제나, 이 불안정한 균형의 모든 조각 뒤에는 더럽고 소리 없는 일을 하는 여성이 있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 편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성찰 - 위스콘신

이곳의 부재는 하나의 해로운 교리에서 비롯된다. "중서부 여자는 원래 강하다." 그 강함의 대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이야기다. 그것은 미덕이 아니다. 타고난 재능도 아니다. 그녀의 생존이 도덕적 의무로 위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생존이 습관이 되면, 삶은 삶이기를 멈춘다.

와이오밍

와이오밍은 숨 쉬는 공허다. 들쭉날쭉한 산, 끝없는 대초원, 그치지 않는 바람, 자유롭게 떠도는 말, 유정, 트럭, 석탄, 그리고 거리의 땅. 여기서 공간은 개념이 아니다. 당신을 빚어내는 힘이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주다. 그리고 여성에게 가장 적대적인 주 가운데 하나다. 여기서 삶은 논의되지 않기 때문이다. 맞서는 것이다. 몸으로, 매일, 온전히. 그리고 스스로 만들지 않은 보호는 어디에도 없다.

목장의 여성 - 49세

Kim은 카운티 하나만 한 목장에 산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비상 상황의 소용돌이다. 안장, 가축, 새벽 세 시의 출산, 바람에 찢긴 울타리, 포식자, 무릎까지 쌓인 눈.

그녀가 남자처럼 일하는가? 아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남자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 남자들이 한 번 부러지고 주저앉는 동안, 그녀는 열 번 부러지고도 계속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의 눈에 그녀는 사람이 아니다. 농업의 한 기능, 재산의 한 운영 요소, 당연하게 여겨지는 존재다.

그녀의 부재는 농업적이고, 구조적이고, 정상화되어 있다.

석유 & 가스 산업의 여성 - 37세

Alex는 미국 에너지의 부드러운 지옥에 잠겨 있다. 불가능한 교대 근무, 살인적인 추위, 농담이 칼날보다 더 빠른 남성 지배적인 환경. 그녀는 유능하고, 머리가 맑고, 준비되어 있다. 그녀보다 더 많이 버는 많은 이들보다 훨씬 더. 존중은 호의처럼 할부로 그녀에게 온다. 나머지는 침묵과 빈정거림과 노력이다. 직업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녀의 부재는 산업적이고 성적이다.

그녀가 보이지 않는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서 너무 유능하기 때문이다.

작은 마을의 여성 - 55세

여기서 마을은 마을이 아니다. 주민 200-300명의 저항 거점이다. 교회 하나, 가게 하나, 길 두 개, 시간제 보안관 한 명.

Linda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모든 일을 한다. 은행 업무, 약국, 자원 봉사, 노인들을 위한 장보기, 아이 돌보기, 비상 상황, 위원회, 장례식, 지원, 곁에 있어 주기.

그녀는 작은 공동체들이 무너지지 않게 막는 인간 기계 장치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는다. 그녀의 존재는 당연하고, 자동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마치 그것이 설명서에 적힌 역할이기로 한 것처럼.

그녀의 부재는 시민적이다. 근본적이지만 인정받지 못한다.

국립공원의 여성 - 32세

엘로스톤, 그랜드티턴, 모두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정말로 알지 못하는 땅.

그녀는 레인저이고, 가이드이고, 생물학자이고, 분석적인 사람이다. 그녀는 동물들이 오기도 전에 그 소리를 듣는다. 흔적을, 지형을, 비상 상황을 읽을 줄 안다. 그녀는 풍경에 대해 진짜 권력을 가졌지만, 공동체는 없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경계에 사는 사람처럼 고립되어 산다. 문명의 일부라고 느끼기에는 너무 많은 자연, 연약함을 허락하기에는 너무 많은 책임.

그녀의 부재는 직업적이고 지리적이다.

그녀는 거기 있다. 결정적인 존재로. 하지만 모든 것에서 멀리.

에필로그 - 와이오밍

와이오밍은 사납게 아름답고, 숨 막히게 아름답고, 목숨을 위협할 만큼 가혹하다.

이곳의 여성은 무시당하지 않는다. 풍경 속으로 흡수된다.

바람은 그들을 조금씩 실어 가고, 거리는 그들을 지치게 하고, 외로움은 그들을 화산석처럼 깎아 낸다. 그리고 끝내 그들은 어디서 여자가 시작되고 어디서 땅이 끝나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한다.

성찰 - 와이오밍

이곳에서 여성의 부재는 자연 그 자체에서 생긴다. 공간, 추위, 침묵, 고립.

여성은 마치 권리도, 보호도, 연결망도, 공동체도 필요 없다는 듯이 땅의 일부가 된다.

하지만 정반대다. 그녀가 미국에서 가장 가혹한 곳에 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그녀에게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그녀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위가 되는 것이다. 풍경이 되는 것.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

Ferdinando Frega